

(가) 유비 논증은 두 대상이 몇 가지 점에서 유사하다는 사실이 확인된 상태에서 어떤 대상이 추가적 특성을 갖고 있음이 알려졌을 때 다른 대상도 그 추가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추론하는 논증이다. 유비 논증은 이미 알고 있는 전제에서 새로운 정보를 결론으로 도출하게 된다는 점에서 유익하기 때문에 일상생활과 과학에서 흔하게 쓰인다. 특히 의학적인 목적에서 포유류를 대상으로 행해지는 동물 실험이 유효하다는 주장과 그에 대한 비판은 유비 논증을 잘 이해할 수 있게 해 준다.

A 유비논증은 두 대상이 몇가지 점에서 유사하다는 사실이 확인된 상태에서 어떤 대상이 추가적 특성을 갖고 있음이 알려졌을 때 다른 대상도 그 추가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추론하는 논증이다.

->

a. 아 시발. 존나 기네.

일단 끊는다. 대다수의 아이들이 문장이 길어지면 끊어 읽을 생각을 안한다.

이런 글을 끊어서 잘근잘근 씹어 먹기 위해서인데,

정작 문법 문제푸는데만 집중하고 이런 거 씹어 먹는데는 써먹지를 못한다.

문장이 길면 끈는다

어떻게 끊느냐?

이건 사람마다 다른데.

(주어 + 서술어)가 보이는 단위로 끊어 읽는 거 같다.

뭐 다르게 말하면 절 단위이고.

그런데 이게 또 꼭 절 하나 하나마다 꼬박꼬박 끊냐고 하면 그건 아니다.

다만, 내가 끊는 지점은 보통 절 과 그 절이 수식하는 부분이라는 거다.

예를 들자면

유비논증은

두 대상이 몇 가지 점에서 유사하다는 사실이 확인된 상태에서/

어떤 대상이 추가적 특성을 갖고 있음이 알려졌을 때/

다른 대상도 그 추가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추론하는 논증이다.

이런식으로.말이다.

다시 말하지만 끊어 읽는 것은 사람마다

호흡이 다르기 때문에 명확하게 내가 어디라고 말 하지는 못하겠다.

되는 만큼 천천히 끊어읽어라.

b. 이 문장은 정의문이다.

‘유비논증’ 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다. 로 끝나며, 유비논증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상세하게 풀어 해쳐준다. 다만, 문제는 이러한 정의는 추상적이다. 와닿지 않는다.

추상적인 게 보이면 무조건 뒤에 구체적인 것이 올 것이며

그 구체적인 것과 추상적인 것들의 구성요소를 연결 지을 준비를 해야한다.

지겹도록 말하지만, 이 준비가 안된 애들이 드럽게 많다.

B. 유비 논증은 이미 알고 있는 전제에서 새로운 정보를 결론으로 도출하게 된다는 점에서 유익하기 때문에/ 일상생활과 과학에서 흔하게 쓰인다.

->

a. 뭐 그렇겠다. 크게 주목가는건 없다. 굳이 따지자면 뒤에 나올 예시를 위해

일상생활과 과학 이라고 말을 했을 수는 있지만 그렇게 중요하진 않겠다.

C. 특히 의학적인 목적에서/ 포유류를 대상으로 행해지는/ 동물실험이 유효하다는 주장과/ 그에 대한 비판은/ 유비 논증을 잘 이해 할 수 있게 해준다.

특히 라는 표현과 그 뒤의 구체적인 예시(밑줄 부분)를 통해 앞 부분의 일상 생활과 과학을 구체화해서 받았다.

뭐 그런데 이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고,

앞서 우리가 ‘유비 논증의 정의’ 와 무엇을 연결 해야하는지 알게 되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의학적인 목적에서/ 포유류를 대상으로 행해지는/

동물실험이 유효하다는 주장과/ 그에 대한 비판’ 의 (즉 구체적 예시) 구성 요소와

‘유비논증은

두 대상이 몇 가지 점에서 유사하다는 사실이 확인된 상태에서/

어떤 대상이 추가적 특성을 갖고 있음이 알려졌을 때/

다른 대상도 그 추가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추론하는 논증이다.’

(즉 정의 또는 추상적인 것) 의 구성요소를 대응시켜야 한다.

다만, 지금 C 문장에서 구체적으로 동물실험이 유효다는 주장과

그에 대한 비판이 어떠한 형태를 띠는지 보여주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것.

그러니까 구체적인 주장의 형태는 뒷 문단에서 볼 것으로 판단 할 수 있다.

(나) 유비 논증을 활용해 동물 실험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쪽은 인간과 ㉠ 실험동물이 ㉡ 유사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신약이나 독성 물질에 대한 실험동물의 ㉢ 반응 결과를 인간에게 안전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추론한다. 이를 바탕으로 이들은 동물 실험이 인간에게 명백하고 중요한 이익을 준다고 주장한다.

A 유비 논증을 활용해 동물 실험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쪽은 / 인간과 실험동물이 유사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신약이나 독성 물질에 대한 실험동물의 반응결과를 / 인간에게 안전하게 적용 할 수 있다고 추론한다.

자 구체적인 주장이 나왔다. Time for 대응(추상 -구체)

보기 힘들테니 내가 앞의 추상적인 문장과 뒤의 구체적인 문장만 따로 떼왔다.
(실제로 글을 읽을때는 눈알이 위 아래로 움직이면서 서로 연결이 되어야한다.)

추상적인 문장 (유비논증의 정의)

유비논증은 두 대상이 몇가지 점에서 유사하다는 사실이 확인된 상태에서 어떤 대상이 추가적 특성을 갖고 있음이 알려졌을 때 다른 대상도 그 추가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추론하는 논증이다

구체적인 문장(유비논증의 예시)

인간과 실험동물이 유사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신약이나 독성 물질에 대한 실험동물의 반응결과를 / 인간에게 안전하게 적용 할 수 있다고 추론한다.

둘을 대응시켜보면 아래와 같다.

두 대상 - 인간과 실험동물

유사성 - 몇가지 점에서 유사하다는 사실

유사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 두 대상이 몇가지 점에서 유사하다는 사실이 확인된 상태에서 어떤 대상의 추가적 특성 -신약이나 독성 물질에 대한 실험동물의 반응 결과
(따라서 자연히 어떤 대상 - 실험동물)

다른 대상- 인간

그 추가적 특성을 가지고 있음- 인간에게도 신약이나 독성물질이 안전하다.

실제 이 능력을 시험장에서 물었다.

23. <보기>는 유비 논증의 하나이다. 유비 논증에 대한 윗글의 설명을 참고할 때, ㉠~㉣에 해당하는 것을 ㉠~㉤ 중에서 골라 알맞게 짝지은 것은? [3점]

<보 기>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개는 ㉡몹시 사납고 물러는 버릇이 있다. 나는 공원에서 산책을 하다가 그 개와 ㉢비슷하게 생긴 ㉣다른 개를 만났다. 그래서 이 개도 사납고 물러는 버릇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u>㉠</u>	<u>㉡</u>	<u>㉢</u>	<u>㉣</u>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⑤	㉣	㉡	㉢	㉠

봐라. 내가 하던 짓이랑 과연 다른지.

결국 정의를 구체적인 것과 대응하는 습관이 있는지 이를 묻는 시험문제인거다.

이 문제를 맞추기 위해 노력하는 것(지문을 뒤져가면서 찾는 것)보다, 애초에 글을 읽을 때 이 습관이 있는게 자연스럽게 글 이해에 도움이 된다.

이렇듯 문제들은 결국 '어떠한 행동'을 내가 하기를 요구한다. 이 행동은 지문을 읽으면서 했어야 하는 행동이지, 문제를 풀 때 하는 행동이 아니다.

(다) 도출한 새로운 정보가 참일 가능성을 유비 논증의 개연성이라 한다. 개연성이 높기 위해서는 비교 대상 간의 유사성이 커야 하는데 이 유사성은 단순히 비슷하다는 점에서의 유사성이 아니고 새로운 정보와 관련 있는 유사성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 동물 실험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쪽은 실험동물로 많이 쓰이는 포유류가 인간과 공유하는 유사성, 가령 비슷한 방식으로 피가 순환하며 허파로 호흡을 한다는 유사성은 실험 결과와 관련 있는 유사성으로 보기 때문에 자신들의 유비 논증은 개연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인간과 꼬리가 있는 실험동물은 꼬리의 유무에서 유사성을 갖지 않지만 그것은 실험과 관련이 없는 특성이므로 무시해도 된다고 본다.

A. 도출할 새로운 정보가 참일 가능성을/ 유비 논증의 개연성이라 한다.

->

a. 정의문이다.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예시와 대응시켜볼 수 있다. 개연성이 높거나 낮은 예시가 나올 수 있다.

B. 개연성이 높기 위해서는 비교 대상 간의 유사성이 커야하는데 이 유사성은 단순히 비슷하다는 점에서의 유사성이 아니고/ 새로운 정보와 관련 있는 유사성이어야 한다.

->

a. 사실 잘 안 와닿는다.

‘새로운 정보와 관련 있는 유사성’이라는 표현이 매우 추상적이다.

구체적인 예시가 따를 것이라 생각한다.

C. 예를들어 동물 실험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쪽은/ 실험동물로 많이 쓰이는 포유류가 인간과 공유하는 유사성, 가령 비슷한 방식으로 피가 순환하며 허파로 호흡을 한다는 유사성은/ 실험 결과와 관련 있는 유사성으로 보기 때문에/ 자신들의 유비 논증은 개연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

앞 문장에서 나왔던 추상적인 표현인

“새로운 정보/ 그리고 관련 있는 유사성”이 어떤 것인지 대응시켜야한다.

(처음에는 동물 실험이라고 착각했으나, 이는 새로운 정보가 아니다.

여기서 얻는 ‘새로운 정보’는 동물 실험이 아니라 ‘유비 추론’으로부터 얻는 새로운 정보이다’)

새로운 정보라는 - ‘동물실험에 대한 유비논증, 그러니까 사람에게 약을 써도 괜찮다’

관련 있는 유사성 - ‘피가 순환하며 허파로 호흡을 한다’

(제일 구체적인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D. 반면에 인간과 꼬리가 있는 실험동물은 꼬리의 유무에서 유사성을 갖지 않지만 그것은 실험과 관련이 없는 특성이므로 무시해도 된다고 본다.

-> a. 정반합이다. 서로 반대되는 예시를 통해서 결국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관련성이 있는 유사성’이 개연성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라) 그러나 ㉠ 동물 실험을 반대하는 쪽은 유효성을 주장하는 쪽을 유비 논증과 관련하여 두 가지 측면에서 비판한다. 첫째, 인간과 실험동물 사이에는 위와 같은 유사성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기능적 차원에서의 유사성일 뿐이라는 것이다. 인간과 실험동물의 기능이 유사하다고 해도 그 기능을 구현하는 인과적 메커니즘은 동물마다 차이가 있다는 과학적 근거가 있는데도 말이다. 둘째, 기능적 유사성에만 주목하면서도 막상 인간과 동물이 고통을 느낀다는 기능적 유사성에는 주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인간은 자신의 고통과 달리 동물의 고통은 직접 느낄 수 없지만 무엇인가에 맞았을 때 신음 소리를 내거나 몸을 움츠리는 동물의 행동이 인간과 기능적으로 유사하다는 것을 보고 유비 논증으로 동물이 고통을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도 말이다.

A 그러나 동물실험을 반대하는 쪽은 유효성을 주장하는 쪽을 유비논증과 관련하여 두 가지 측면에서 비판한다.

a. 그러나 뒤에서 반댓말을 만들었어야 하는데 깜빡했다. 그리고 막 생각했을 때 마땅히 올 말이 없었다.

읽어보니까 생각이 났다.

유비논증의 예시는 '동물실험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논증' 뿐만 아니라 그를 '반대하는 논증'도 있었다.

그러니까 이건 대응각이다.

b. 심지어 두 가지나 된다. 두 가지가 뭘지 열심히 체크해보자.

B 첫째 인간과 실험동물 사이에는 위와 같은 유사성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기능적 차원에서의 유사성일 뿐이라는 것이다.

a. 첫째는 그냥 두가지 중 하나라는 점에서 째졌다.

b. 위와 같은-> 지칭어다. 뭐와 같은 걸까?

비슷한 방식으로 피가 순환하며 허파로 호흡을 한다는 유사성

c. '기능적 차원의 유사성' 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일단 '피가 순환하며 허파로 호흡을 한다' 가 '기능적 차원'의 한 예시인거 같은데 정확히 어떤 얘기를 하고픈건지는 모르겠다.

(대응은 문장 안에서도 이뤄진다. 대응은 개념간의 관계이다.)

d. '뿐' 이란다. 그러니까 단순히 '기능적 차원의 유사성' 외에 다르게 필요하다는 얘기이다.

뭘가 필요한지를 찾는게 중요한 task이겠다.

C. 인간과 실험동물의 기능이 유사하다고 해도/ 그 기능을 구현하는 인과적 메커니즘은 동물마다 차이가 있다는 과학적 근거가 있는데도 말이다.

->

a. 아 그러니까 '인과적 메커니즘' 이라는 것도 동일해야 한다는 얘기이다.

정확히는 뭔지 모르겠지만 확실한건

'피가 순환하며 허파로 호흡을 하는 것' 이외에도 무엇인가가 더 필요하다.

이건 '인과적인 무언가이다.'

D. 둘째 기능적 유사성에만 주목하면서도 막상 인간과 동물이 고통을 느낀다는 기능적 유사성에는 주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

a. 아까 기능적 유사성의 구체적 예시를 찾았다.

'피가 순환하며 허파로 호흡을 하는 것' 이다.

이 외에도 '인간과 동물이 고통을 느낀다' 도 기능적 유사성의 구체적 예시인가보다.

둘이 무슨 같은 점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을 '기능적 유사성'이라고 하나보다.

'기능적' 이라는 거는 '기능'이 비슷한 거니까 동물이나 사람이나 하는 짓이 비슷하다는 것 같기도 하다.

E. 인간은 자신의 고통과 달리 동물의 고통은 직접 느낄 수 없지만/ 무엇인가에 맞았을 때 신음 소리를 내거나 몸을 움츠리는 동물의 행동이/ 인간과 기능적으로 유사하다는 것을 보고/ 유비 논증으로 동물이 고통을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도 말이다.

-> 유비논증의 또 다른 구체적 예시가 나왔다.

하도 많이 나왔다. 정의와 대응시키자. 이번 것은 명시적으로 구성 요소가 등장해 있지 않아 조심해서 해야한다.

인간 동물 -두 대상

인간과 동물의 기능적 유사성 (무엇인가에 맞았을 때 내는 신음 소리, 몸을 움츠리는 행동)

어떤 대상- 사람

새로운 사실 - 고통을 느낀다.

다른 대상 -동물

새로운 결론 - 동물도 고통을 느낀다.

(마) 요컨대 첫째 비판은 동물 실험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유비 논증의 개연성이 낮다고 지적하는 반면 둘째 비판은 동물도 고통을 느낀다는 점에서 동물 실험의 윤리적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인간과 동물 모두 고통을 느끼는데 인간에게 고통을 끼치는 실험은 해서는 안 되고 동물에게 고통을 끼치는 실험은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결국 윤리성의 문제도 일관되지 않게 쓰인 유비 논증에서 비롯된 것이다.

A 요컨대 첫째 비판은 동물 실험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유비 논증의 개연성이 낮다고 지적하는 반면 둘째 비판은 동물도 고통을 느낀다는 점에서 동물 실험의 윤리적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a. 요컨대 요약하는데 쓰인다. 앞에 나온 말들과 같은 말인데 조금 다른 관점에서의 내용이 제기하는 것이다.

확실히 조금 더 먼 관점에서, 그러니까 “유비논증의 개연성”의 관점에서 보았다.

이전에도 많이 다뤘지만

Again, 이렇듯, 요약하자면, 요컨대

와 같은 말들 뒤에 완전 똑같은 말은 나오면 좋은 글이 아니다.

같은 말을 살짝 다른 관점에서 보여주는게 좋은 활용이다.

B 인간과 동물 모두 고통을 느끼는데 인간에게 고통을 끼치는 실험은 해서는 안 되고 동물에게 고통을 끼치는 실험은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때문이다. -라는 말은

원인- 결과 프레임을 제시하는 단어이다.

이 사람이 원인과 결과로 설정한 것을 찾아야 한다.

결과 - 동물도 고통을 느끼므로 동물 실험의 윤리적 문제를 제기

원인 - 인간과 동물 모두 고통을 느끼는데 한쪽에게만 실험하는건 불공평하기 때문.

C. 결국 윤리성의 문제도 일관되지 않게 쓰인 유비 논증에서 비롯 된 것이다.

결국 이라는 말은 재진술에 활용된다.

‘살짝 다른 관점’을 기억하자.

앞서 첫 번째 주장은 ‘유비논증의 개연성이 낮다’고 했다

반면 두 번째 주장은 ‘유비논증의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유비논증을 해야한다’

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 둘을 합치면 모순이 나온다.

그래서 ‘일관되지 않다’는 표현을 쓴 것이다.